화장장 이용자의 시설요구에 관한 연구

민병욱* · 이행열** · 이재근**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박사과정 · **상명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교수

User Demand on the Crematorium Facilities

Min, Byoung-Wook* · Lee, Haeng-Yeol** · Lee, Jae-Kuen**

*Dept. of Environmental Resources,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improve the funeral and grave culture which has brought about many social problems, and to fix the crematory culture as the future funeral ceremony in our country.

In this study, we first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of cremation culture. Second, we surveyed three representative crematorium as an object of study and investigated similar sample buildings in Japan, we analyzed the problem of existing crematorium. Finally, we arranged the basics to approach the space program and design criteria of this project.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as below ;

1. The entrance of vehicles has been commonly concentrated to the opening time of crematorium, therefore, Peak time has come out as circulation of cremation and waiting time is increasing, also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congestion normally.

2. The whole problem of crematorium is poor environment, inferior buildings, noise, unsatisfactory ventilation and privacy, insufficient convenience facilities.

3. The user demand on the crematorium facilities is a private family room for waiting area, a farewell room for family members in a direct line, an outdoor rest area, and the various service facilities, and so on.

4. For improvement of the funeral and grave culture, it is necessary that crematorium is not a hatred facilities, as the conversion of consciousness, and to new shape of charnel as it wore family tomb.

Key Words : Crematorium Facilities, User Demand, Crematorium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장묘문화는 역사와 종교, 문화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아직도 화장을 조상에 대한 불효, 경제 사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1]쯤으로 여기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선진 외국에는 이미 화장이 전통,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도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화장을 선택하면서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화장문화의 대중화 및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나 실제 화장 관련시설(화장장, 납골당 등)의 개선의 정도는 아직 예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는 4개 화장장, 33개의 화장로가 있으나 각 화장장 마다 당일 처리할 수 있는 화장 능력을 모두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화장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화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국민적 정서가 지역 이기주의로 작용하여 부지확보와 시설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양적에서 뿐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서울시립장묘사업소과 부산 영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화장장은 한결같이 소규모 건물에다 낡고 오래된 지저분한 화장로 시설, 부족한 편익시설 등으로 고인을 위한 엄숙한 장례를 치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번 방문한 후에는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라지게 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등이 맞물려 화장장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화장 기피의식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유입과 유교에 바탕을 둔 화장금지법[2]에서 비롯되어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시신을 태워 없애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의식은 쉽게 고쳐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1997년의 화장 비율[3]이 23.5%에 도달할 정도로 화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설문조사의 결과[4]에 따르면 80.66%가 화장을 생각해보거나 화장을 하겠다고 응답해 화장에 대한 관심은 무척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다 납골당 시설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족 단위별 납골묘[5] 등 새로운 납골형태가 속속히 제안되고 있으며, 무공해 화장설비의 확충과 새로 건축되는 깨끗한 이미지의 화장장 등이 뒷받침됨으로 화장장은 점점 필요 불가결한 장묘제도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장문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지 못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의 준거틀로 수도권의 3개의 화장장을 선정하여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문헌 및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분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화장장의 설계기준을 제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국내의 대표적인 화장장인 수도권의 벽제 서울 시립 장묘 사업소와 성남시 영생관리 사업소,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부산 영락공원으로 하며, 유사한 규모의 일본 화장장도 참고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Design Criteria와 Space Program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기존 화장장의 시설요구에 관한 내용을 조사, 연구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그 방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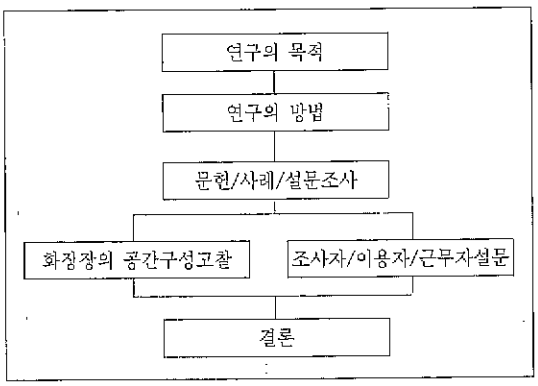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도식화

II. 화장장의 공간구성

화장장의 부지 구성을 위해 화장장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현재 국내의 주요 화장장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며, 세부 시설 구성 분석을 위해 벽제 화장장과 성남 화장장, 최근에 완공된 부산 화장장과 일본의 현대화된 여러 화장장을 참고로 하였다.

1. 화장장의 부지구성

1) 화장장 부지 구성 관련 법규 분석

(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1992. 12. 9)

소각장, 관리사무실, 대기실, 기타 필요한 시설물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하여야 하며, 소각장은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소각로가 설치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고, 소각에 의하여 생기는 매연, 분진 또는 악취를 처리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장 주위에는 높이 2m이상의 담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21조, 1994. 3. 16)

이용자의 호젓한 성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묘역내 및 그 주변 지역은 녹화 또는 조경시설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성묘절 등 일시에 다수인이 이용할 때를 감안하여 묘지 이용자의 집산이 용이하도록 제반 교통기관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규모의 진입도로를 결정하여야한다. 그리고 납골당과 장례예식장을 병행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2) 화장장 부지 구성 요구 조건[6]

화장장의 부지는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며, 장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지규모를 확보하고, 화장장의 소음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변과 분리시키며, 유족과 조문객에게 만족스러운 공간과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규모 화장장의 경우 납골당이 함께 계획된 곳이 많은데, 장례식장이 부설된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화장과 장례 행위를 함께 행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납골 공원을 통한 주변의 공원화도 부지 구성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설구성[7]

1) 화장장 건물의 형태

화장장의 건물형태는 다음 2가지로 구분된다.

(1) 화장, 대기, 관리로 구성된 화장장 단독형

(2) 화장형에 제장을 추가한 葬祭場形

이러한 화장장의 건물 형태는 祭場 부문 설치의 유무, 고별과 수골의 형식, 대기의 형식, 계획 爐數에 따른 건물규모, 외부공간구성 등에 따라 1동형에서 4동형으로 분할 또는 조합될 수 있다.

2) 시설 구성

화장장의 시설구성은 다음과 같이 대별될 수 있다.

(1) 고별, 화장, 수골을 행하는 화장부문

(2) 화장 종료시까지 휴식, 식사 등을 하는 대기부문

(3) 밤샘(조문), 고별식 등을 행하는 祭場부문

(4) 사무, 관리 등을 행하는 관리부문

3. 각 부분별 구성

1) 화장부문

화장부분에서 고별부분은 고별실, 고별홀, 로전실로 나누어지며 고인과 최후의 이별 의식을 하는 공간이고, 순수 화장부분은 로전실과 화장 작업 공간으로 구성되며, 수골부분은 화장 후 燒骨(화장후 남은 유골)을 담는 곳으로 분골실이 함께 되는 경우가 많다.

2) 대기부문

이 공간은 3일간의 조문 및 장의 행위와 화장행위가 1차적으로 종료되고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장소로서 로비(홀) 형식과 객실형식의 대기실로 구성되며, 식당, 다실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3) 관리부문

관리부분은 사무실, 회의실, 소장실, 직원휴게실, 숙직실, 藩備室, 창고 등으로 구성되며 화장장과 별도로 위치하는 경우(벽제, 성남 화장장)와 화장동 건물내(부산 화장장)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III. 조사 방법론

1. 설문조사 방법

본 조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화장장인 서울 시립 장묘사업소(16기), 성남시 영생관리 사업소(6기), 최근에 완공된 부산영락공원(15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기존 화장장들의 이용형태와 이용자 및 근무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형태의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1) 설문1(조사자용) - 설문자가 직접 유족의 동선 및 제실의 이용 실태, 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2) 설문2(이용객용) - 각 화장장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방문한 화장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설문하였다.

3) 설문3(근무자용) -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근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였다.

2. 설문배포 및 회수

본 조사는 1998년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그 중 조사자용 설문은 각 화장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고, 근무자용 설문은 그 화장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직접 상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용객용 설문은 학교 및 직장 등에 2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3개 화장장에 각 30명을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3. 측정 항목

1) 조사자용 설문
(1) 외부환경 및 형태 조사
① 주차장 사용형태 조사
② 외부 대기 인원의 형태와 진입시 예식여부
(2) 화장장 시설이용형태 조사

2) 이용자용 설문 분석
(1) 화장장 방문 후 화장 인식변화
(2) 방문한 화장장의 전체적인 평가
(3) 옥외 공간의 요구시설
(4) 하관 후 고별에 대한 질문
(5) 고별 후 관망에 대한 질문
(6) 대기공간에 대한 질문
(7) 대기실 내 별실을 두는 것에 대한 질문
(8) 수골에 대한 질문
(9) 화장장의 전반적인 필요시설 및 개선사항

3) 근무자용 설문 분석
(1) 근무자가 생각하는 유족들의 요구사항
(2) 고별실의 필요 여부와 관망홀의 형태
(3) 대기실 위치
(4) 화장 후 유골 운구 방법
(5) 기계나 전기실 등의 위치
(6) 시신 냉동 보관 창고
(7) 유품 처리
(8) 유택동산 위치
(9) 새로운 납골 형태
(10) 관리동과 화장동의 거리

Ⅳ. 화장장 이용자의 시설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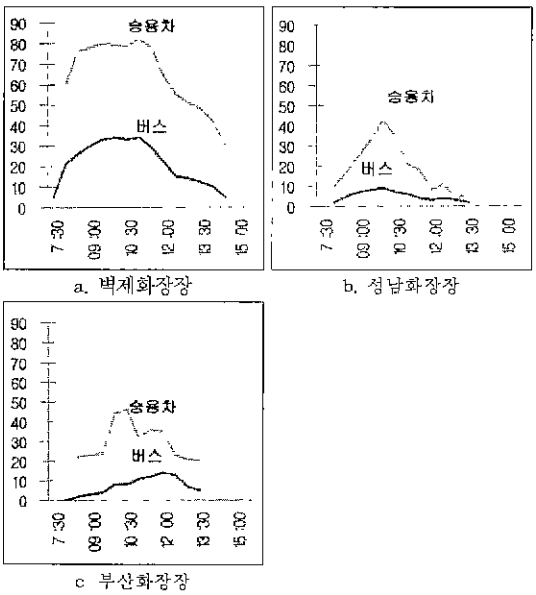
1. 조사자용 설문 분석

각 표의 값들은 현장 조사치이며, 原單位의 적용치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벽제, 성남, 부산 화장장의 산술평균에 의해 계산되었다.

1) 외부환경 및 형태조사
(1) 주차장 사용형태 조사
① 벽제의 尖頭時間(Peak Time)은 10:00~11:00 였고, 성남은 9:30-10:30 였으며, 부산의 경우는 11:00-12:00 였다.
② 부산의 경우 승용차와 버스의 첨두시간이 약간 차이가 났는데, 이는 일일 화장건수가 화장로 기수에 비해 많지 않으며, 일정 시간대에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③ 차량의 유입은 주로 화장장의 오전 개장시간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 많은 차량이 그 이전부터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주차장의 첨두시간은 화장로가 다 찬후 제일 처음 시작된 화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대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으로, 용량을 초과하여 대기하는 경우에 발생하였다.

⑤ 평균 재차 인원과 교통수단별 분담율에서 보면 유족들의 교통수단은 주로 장례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a. 벽제화장장 b. 성남화장장

c 부산화장장

그림 2. 시간대별 주차현황

표 1. 시간대별 발생주차량 조사

구 분	벽제화장장				부산화장장			
	승용차		장례버스		승용차		장례버스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07:00시 이전	5	0	2	0	0	0	0	0
07:00-08:00시	55	0	19	0	15	0	0	0
08:00-09 00시	19	1	9	0	8	0	3	0
09:00-10:00시	16	15	11	7	21	0	5	0
10:00-11:00시	23	20	10	10	11	23	5	2
11:00-12:00시	4	22	2	14	8	5	3	0
12:00-13.00시	4	17	2	10	2	16	1	8
13:00-14.00시	2	11	1	5	0	7	0	5
14:00-15.00시	0	12	0	6	1	3	0	2
15:00-16:00시	0	11	0	4	0	0	0	0
16:00시 이후	0	19	0	0	0	12	0	0
계	128	128	56	56	66	66	17	17

표 2. 교통수단별 분담율조사 (단위: %)

구 분	승용차	택시	장례버스	계
교통수단	22.80	1.74	75.45	100.0

(2) 외부 대기 인원의 행태와 진입시 예식여부

① 외부에서의 대기인원의 행태는 대부분 담배를 피거나 담소를 나누는 경우였는데, 이는 실내 대기공간의 부족과 소음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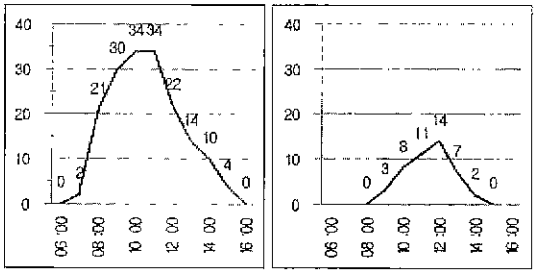
② 벽제의 경우만 진입시 간단한 목례의식이 인솔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부분 유족들의 號哭行爲가 이루어졌다.

2) 화장장 시설이용형태 조사

① 화장 첨두 시간대는 주차장 尖頭 時間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를 이루었다.

② 화장장별 평균 고별시간은 7~10분 정도였으며, 고별시간은 5분 내외였다.

③ 화장로 순환시간은 벽제의 경우 2시간 정도였으며, 부산의 경우 약 30분정도 더 소요되었는데



a 벽제화장장(16기) b. 부산화장장(15기)

그림 3. 화장장별 시간별 화장 누적 도표

표 3 시간별 실별 이용자분포

구 분		입구홀	고별실	관망홀	식당	대기실	수골실	기타(욕의)	계
08 00-	08:00	36	37	129	0	63	0	281	546
09:00	08:30	42	93	101	68	135	0	193	632
09.00-	09 00	47	88	116	85	106	36	302	780
10 00	09:30	68	116	114	108	163	27	248	844
10:00-	10.00	32	86	110	82	94	41	439	884
11:00	10:30	74	93	87	220	147	32	287	940
11:00-	11:00	36	69	111	154	154	38	322	884
12 00	11:30	28	44	161	91	170	44	2381	769
12 00-	12 00	32	25	72	65	77	39	262	372
13 00	12 30	17	21	66	91	30	48	214	487
13 00-	13 00	12	13	69	105	42	22	101	364
14 00	13:30	8	0	21	71	35	12	157	294
14 00-	14:00	3	0	14	56	27	7	103	210
15.00-	14:30	0	0	9	18	3	0	41	71
16:00	15:00	1	0	3	0	8	0	22	34
15:00	15 30	-	-	-	-	-	-	-	-

표 4 화장시설별 고별시간 및 수골시간 조사

시 설 명	고별시간 (분/위)	수골시간 (분/위)
벽제화장장	7	5.2
부산화장장	10.7	5.92
적 용 치	10	5.5

표 5. 화장시설별 화장로 순환시간

시설명	화장로 순환시간*
벽제화장장	117분(1시간 57분)
부산화장장	145분(2시간 25분)
적용치	120분(2시간)

* 화장 시작 후 다음 화장 시작까지 총 소요시간

표 6. 화장장별 일일 최대처리용량 및 1기당 1일 최대처리량

시설명	화장기수	평균 화장 건수(위)	1일 최대 처리용량 예측(위)*	최대 처리 용량 원단위 (위/기)	1기당 1일 적정 최대 처리용량
벽제화장장	16기	55	72	4.5	4.00
부산화장장	15기	20	65	4.3	4.00
적용치	-	-	-		4.00

* 화장장 개장시간 (1일 9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화장로를 가동하였을 때 예측되는 1일 최대 처리량

표 7. 화장장별 첨두시 시신대기수 및 1기당 시신 대기수 조사

시설명	화장기수	첨두시	첨두시 대기수	첨두시 1기당 시신대기수
벽제화장장	16기	10·30	24기	1.5
부산화장장	15기	11·30	3기	0.2
적용치				1.5

이는 벽제의 경우 많은 대기 인원으로 인해 화장로가 채 식기도 전에 다음 화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④ 평균 화장 건수와 尖頭時 시신대기수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벽제의 경우 부산에 비해 많은 화장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⑤ 15기의 경우 평균 1일 최대 처리용량은 약 60위 정도로 1기당 하루에 최대 4기의 처리용량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⑥ 시설별 실별 이용자 분포는 벽제화장장 현장조사치이며 고별실은 4개소, 대기실 2개소, 수골실 2개소에 있는 인원의 총합을 표시하였다.

2. 이용자용 설문 분석

1) 화장장 방문 후 화장 인식변화

화장에 관한 의식조사에서의 화장을 하겠다는 수치(43.33%)보다 방문후의 수치(28.89%)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부산에 비해 나머지 두 곳의 감소 수치가 큰 것으로 보아 낙후된 시설 등이 문제점 때문으로 유추된다.

2) 방문한 화장장의 전체시설 평가

방문한 화장장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조문객 편의시설의 부족이었는데 성남(93.33%), 벽제(66.67%), 부산(50%) 순으로 수치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외부 휴식공간의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성남의 경우 화장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한 것(76.66%), 건물의 노후화(66.66%) 등이 지적되었다.

전체적으로 성남화장장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으며 시설이 좋은 화장장의 경우 외부 휴식공간을 요구하였다

3) 옥외 공간의 요구시설

옥외 공간에 꼭 있었으면 하는 시설로 조용히 쉴 수 있는 장소(벤치, 정자) 등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원하였다. 그 외에 산책로, 옥외 화장실, 어린이 놀이공간 등 소수의견이 있었다.

4) 하관 후 고별에 대한 질문

전체의 79.76%가 고별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해 고별실의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 규모로는 조문객 전부가 참석하는 규모(29.63%)보다는 직계 유족만 참석할 수 있는 규모가 적당하다는 응답(51.85%)이 높게 나왔다.

표 8. 고별실 필요도 / 적정규모

문항	항목	공통 표본수	공통 비율	비 고
고별실 필요도	꼭 필요	71	79.76%	전체의 79.76%가 고별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	10	11.24%	
	모름	8	9.00%	
	합계	89	100.00%	

전체의 79.76%가 고별실이 꼭 필요하다 응답해 고별실의 중요도를 알 수 있었으며 그 규모로는 직계유족

만 참석할 수 있는 규모가 적당하다는 응답(51.85%)이 많았다. 고별식 참석 후 행위는 고인이 로에 들어가는 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30%), 그 외 대기실로 갔거나 마땅한 곳이 없어 서성거린 경우가 많았다.

고별실의 문제점으로는 벽제 화장장의 경우 소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어둡고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는 응답이었으며 완전한 차단과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 연출이 개선사항으로 요구되었다.

성남 화장장에는 고별실이 없으므로 전체 응답자의 30%가 고별식을 하지 않았고, 미리 고별을 하고 왔거나 다른 장소(장례버스 등)에서 한 경우가 33.33%나 되었다.

부산 영락공원의 경우 깨끗한 편이었고, 비교적 조용했으며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몇몇 소수의 문제점으로 역시 주위가 소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곳 이용자들은 대체로 시설에 만족하고 있었다.

5) 고별 후 관망에 대한 질문

관망홀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고별실에서 고별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 화장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경우 슬픔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지거나 혼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관망실이 필요하다면 로마다 1개씩 완전 구획되고 문이 있는 실을 원하는 경향이었다.

관망홀의 문제점으로는 소란스럽고 어수선하다, 조명이 어둡고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비좁고 옹색하였다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고별실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되었던 부분으로 화장장 전체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표 9. 관망실 필요도

문항	항목	공통		비 고
		표본수	비율	
관망실 필요도	꼭 필요	40	44.44%	관망홀이 없는 부산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불필요	41	45.56%	
	모름	9	10.00%	
	합계	90	100.00%	

6) 대기공간에 대한 질문

부산 영락공원의 경우만 비교적 시설이 다양하고 좋았다, 환기도 잘 되었고 깨끗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른 두 곳의 대기실은 너무 좁고 좌석이 부족하다,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대기공간 중 식당은 소란스럽고 어수선하며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 지저분했다고 응답하여 편의시설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이유들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 이외의 공간에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수적으로 대기공간에는 자동판매기나 매점 등의 서비스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10. 대기실의 적정 위치

문항	항목	공통		비 고
		표본수	비율	
대기실의 적정 위치	화장장 건물내	25	27.78%	61.11%의 응답자가 화장장 건물과 인접한 별도의 건물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인접한 별도의 건물	55	61.11%	
	무관	9	10.00%	
	무응답	1	1.11%	
	합계	90	100.00%	

7) 대기실 내 별실을 두는 것에 대한 질문

식당 외 대기공간으로 차를 마시는 공간을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기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등이 있었다

표 11 별실을 두는 방안

문항	항목	공통		비 고
		표본수	비율	
별실 두는 방안	있으면 이용	77	86.52%	86.52%가 별실이 있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용 않겠다	7	7.87%	
	모름	4	4.49%	
	무응답	1	1.12%	
	합계	89	100.00%	

8) 수골에 대한 질문

고별실과 마찬가지로 직계유족만 참석 가능한 규모가 적당하다는 대답이 73.33%로 가장 높았다.

수골실의 문제점으로 소란스럽고 어수선하다, 비좁고 옹색하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 분진의 염려도 있었다, 조명이 어둡고 분위기도 좋지 못했다 등이 있었는데 이는 화장장 전체의 문제점과도 일치한다.

단, 부산 영락공원의 경우 수골시 유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지켜졌다 등의 만족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9) 화장장의 전반적인 필요 시설 및 개선사항

가족단위의 대기실(별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의무실이나 옥외 휴게실, 기타 편의시설 등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부대시설 크기의 확장, 식당의 위생상태, 환기, 방음시설, 옥외 환경 개선, 안내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3. 근무자용 설문 분석

1) 근무자가 생각하는 유족들의 요구사항

화장장이 오래되었을수록 화장시설에 대한 현대화 요구(51.61%)가 많았고 그 외로는 식당홀에 대한 요구(32.26%)가 많았다.

2) 고별실의 필요 여부와 관망홀의 형태

고별실이 없는 성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별실이 필요하다고 응답(78.26%)하였고, 관망홀의 필요도는 이용자 설문에서의 결과(45.56%)보다 불필요하다는의견(61.29%)이 조금 높았으며, 관망홀의 형태는 이용자 설문에서와 같이 로마다 1개씩 가족별 관망홀이 좋다고 응답(56%)한 사람이 많았다.

3) 대기실 위치

대기실의 위치는 화장동과는 별개의 인접한 건물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54.84%)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장동 내에 위치(38.71%)하는 것을 바랐다.

4) 화장 후 유골 운구 방법

사람에 의한 대차이동 방식이 아직까지는 선택율이 높았으나 부산의 경우 지하 PIT 이송방식을 선호하였다.

대차 이동 방식의 장점으로는 들어간 로에서 다시 나오므로 유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점, 고장의 염려가 없는 점을 들었고, 단점으로 냄새, 분진 등으로 인해 로전실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유골이 다른 가족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많이 꼽았다.

지하 PIT 이송 방식의 장점으로는 로전실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자동 이송 장치가 고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지체로 유족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5) 기계나 전기실 등의 위치

기계나 전기실의 위치 선호도는 지하나 지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6) 시신 냉동 보관창고

응답자의 61.29%가 無緣考者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시신 냉동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7) 유품 처리

유족이 가져온 유품의 경우 선별적으로 골라서 유품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을 원하였다.

8) 유택동산 위치

유택동산이 납골당 부근에 위치하는 것을 원한 응답(45.1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장장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41.94%)이 높았다.

9) 새로운 납골형태

가족 납골묘 및 벽식 납골 등 새로운 납골 형태에 대해서 응답자의 96.7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 관리동과 화장동의 거리

관리동과 화장동은 조용하고 관리하기에 지장이 없다면 멀리 있어도 괜찮다는 응답이 조금 많아(58.07%) 시끄럽거나 번잡스러운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조사의 표본으로 대표적인 화장장인 벽제, 부산, 성남 세 곳을 설정하였으나, 세 화장장의 경우 너무 다른 시설 현황과 이용 인구의 집중현상 등으로 설문조사의 결과에 무척 많은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했었고, 그로 인해 세부적인

연구로 연령별, 직업별, 종교별 등 신상에 따른 차이 분석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의 화장장의 표본수를 더 늘려 조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외(일본 등)의 화장장에도 설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장의 전반적 문제점은 지저분한 화장로와 노후화된 건물, 좁고 옹색한 대기공간과 조문객 편의 시설의 부족, 소음, 분진, 환기의 우려, 조명, 프라이버시의 부족 등이며, 요구사항은 매점, 자동판매기, 다양한 서비스시설과 옥외 휴식 공간(벤치, 정자, 산책로), 옥외 화장실,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다.

화장장의 각 실별 요구 사항으로는 고별실은 반드시 필요하며, 직계 유족이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적당하고, 관망홀은 필요 여부는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있다면 爐마다 1개씩 완전히 구획된 관망실의 형태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실의 형태는 화장동과 인접한 별도의 건물이 적당하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별실이 적극 요구되었으며 그 외로는 간단한 수면공간, 아이들의 놀이공간 등 이 요구된다. 수골실은 유골을 확인할 수 있고 직계 유족 참석할 수 있는 규모가 좋으며, 관리동은 조용하고 관리에 지장 없는 한 화장장과 인접한 별도의 건물 형태가 적당하다. 기타 필요한 시설로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냉장 보관 창고와 의무실, 가족단위의 납골묘 같은 새로운 납골 형태 등이었다.

이렇듯 현재의 화장장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과 요구사항들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용하여 다음 연구로는 화장장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주1. 한국일보 1998.10.19
주2. 전병익, 박상호, 1997, p5.
주3 보건복지부 자료 (1998)
주4 3장의 설문조사에서 화장문화에 대한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측정치는 표기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기술하였다.
주5 조종식, 1997, p202.
주6 전세영, p437
주7. 건축사조연구소, 1994, p19

인 용 문 헌

1. 박석안 (1988) 火葬場 建築計劃에 관한 硏究 ,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5-27
2 조종식 (1997) 韓國의 火葬과 納骨堂.
3 전병익, 박상호 (1997) 現行 墓地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東義法政 13.
4. 建築思潮硏究所 編 (1994) 建築設計資料 46 -葬終場, 納骨堂.
5. 전세영. 도시기반 시설로서의 화장장 계획 437-438
6 金晟淳의 (1994) 멍드는 금수강산 묘지제도 고쳐야 한다. 연합통신.
7. 전영배, 최찬환 (1998) 건축 법규해설, 세진사.